

“2022 대통령·지방 선거 동시 실시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서 언급 “현행 헌법, 시대에 맞지 않아… 권력구조 개편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3년이 흘렀다”며 “산업화 시대와 민주와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

한 헌법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다.

특히 “권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면서 “현행 제도 아래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한두 번이면 사람의 문제지만 예외가 없다면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서 “코로나 19가 잠잠해진 내년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전히 계속되는 원구성 갈등에 대해 박 의장은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몹시 아깝다”며

“(협상의)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 어느 한쪽에서 타진한다면 적극 증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로 정치 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면서 “국회의장은 ‘정책형치’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세종의 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는데,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다”며 “현재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가 (회담 촉구) 결의안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코로나19 감염 대책과 관

련해 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여야의 국회법 개정 합의를 전제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화상회의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모든 비대면 회의와 표결은 여야 합의가 됐을 때만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문제, 현실문제의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과거는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양국 관계가 더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사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문을 인출할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대 신용대출 사라진다... ‘영끌’ 어려워져

은행권 우대금리·한도 축소 검토... “대출 총량·속도 관리” 특수직 대출도 손 봐 금융당국 요청 따른 방안 마련할 듯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 (대출자금으로 투자)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신용대출이 잠재적 금융 위험 요소로 지목되자, 은행권이 스스로 대출 총량·속도 조절에 나선다.

우대금리 폭을 줄여 전체 신용대출 금리 수준을 높이고, 최고 200%에 이르던 일부 전문직의 연 소득 대

비 신용대출 한도도 줄일 방침이다.

16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방안으로써 우선 우대금리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85~3.75%(각 은행 신용대출대표상품 기준) 수준이다.

각 은행에서 최저 금리로 돈을 빌리려면 우대금리(금리 할인) 혜택을 최대한 받아야 하는데,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 계좌나 계열 카드 이용 실적, 금융상품 가입 유무 등 여러 부가 조건에 따라 부여된다.

우대금리 수준은 은행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낮게는 0.6% 정도부터 높게는 1%에 이른다.

결국 이 깎아주는 우대금리 폭을 줄여 신용대출 금리를 지금보다 높이면 대출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에 연말까지 신용대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저소득 계층의 생활고와 관련된 신용대출은 지장이 없도록 해당과도 요청했다”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려면, 은행로서는 소수 특수직 등의 거액 신용대출 한도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불황에 복권판매 ‘불티’

상반기 2조6000억원 팔려 연금복권도 8년만에 최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복권이 2조6000억원어치 팔려 2005년 이후 최대 규모 판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총 판매액은 2조620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1% 증가했다.

이는 복권위원회가 상반기 기준 복권 사업 실적을 공개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상반기 기준 증가율은 지난 2012년(17.7%)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복권은 경기가 하강할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불황으로 ‘일확천금’에 눈길을 돌린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품별로 보면 로또 판매액이 약 2조308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인체식 복권이 1863억원, 결합식 연금복권이 855억원, 전

지식 복권이 408억원 등이었다.

특히 연금복권 판매액은 작년 동기(508억원)보다 68.2% 급증하면서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12년(1313억원) 이후 8년만의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는 매월 당첨금을 주는 연금복권의 1등 당첨금이 올해 들어 출시 9년 만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전 기준 월 당첨금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 ‘연금복권 720+’를 지난 4월 30일 출시했다.

종전까지 1억원의 일시금을 지급하던 2등 당첨자에게 10년간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너스 추첨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연금 당첨자도 확대했다.

복권의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복권 판매량도 함께 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경기 불황과 복권 판매량 사이 뚜렷한 상관관계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복권 상품 개편에 따라 당첨금이 늘어 구매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판매량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중앙부처 女고위공무원 122명 역대 최대

공공부문 균형인사 보고서 중기부·방통위 등 8곳 0명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1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벤처부 등 8개 부처에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통계를 담은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539명 중 여성은 122명(7.9%)으로, 전년(102명)보다 19.6% 증가했다. 규모와 증가폭 모두 최대다.

중앙부처 과장급의 경우 전체 1789명 중 여성이 372명(20.8%)으로, 전년(311명)보다 19.6% 늘었다. 지방 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17.8%, 21.1%로 역시 전년보다 약 19%씩 올랐다.

여성 고위 공무원이 1명도 없는 중앙부처는 중소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방위사업청·방송통신위원

회·조달청·통계청·세관청·행복청 등 8곳이었다.

이 가운데 중기부·방통위·방사청·세관청 등 4곳은 최근 3년 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는 이들 부처가 개방형 직위 채용이나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부처 3.5%, 지자체 3.99%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3.33%로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했다.

중앙부처 중에선 교육부·국방부·검찰청·해경청·국무조정실·산림청·소방청 등 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형 인재 선발도 확대되고 있다.

지역인재는 국가직 공무원에 350명이 채용돼 전년(310명)보다 40명 늘었다.

저소득층 구분 모집의 경우 지방직(605명)은 채용 인원이 전년보다 13명 증가한 반면 국가직(133명)은 4명 줄었다.

연합뉴스

창립총회 개최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제주 고압가스판매사업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설립동료자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일 시
2020년 10월 07일 오전 11시
- 2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600 제주특별자치도 가스판매협동조합 2층 회의실
- 3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서 채택의건
제2호 의안 - 정관(안) 확정건의건
제3호 의안 -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확정건의건
제4호 의안 - 임원선출의건
- 4 기 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 5 참석대상
제주시,서귀포시일원에서 고압가스 판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

2020년 9월 17일
가칭)제주고압가스판매사업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김 영 탁
(010-5320-5566)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 옥 중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크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